

“삭개오에게 찾아온 기쁨”

누가복음 19장 1-10절

삭개오는 상업도시의 길목 좋은 곳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으로 그 당시 사회제도로 보아서 지위와 명예를 가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그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호의 호식하며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무서장 삭개오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즐거워야 했지만 그의 마음은 병들어 가고 참 만족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민중에 있던 삭개오는 어느 날 그렇게도 유명한 예수님이 자기가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예전부터 들었지만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니 어떻게 해서도 만나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 군중들이 구름 떼 같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예수님을 만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그는 키가 작아 군중들로 인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 볼 수 있을까 궁리를 하나가 삭개오는 자신의 명예 지위의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의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기로 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소문대로 예수님은 군중들에 겹겹이 둘러 싸여 오시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서로 밀치고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돌무화과나무 위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어오시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앉아있는 나무 밑에 오시더니 걸음을 멈추고 위를 쳐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함께 군중들도 덩달아 위를 쳐다보며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삭개오는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어찌나 좋은지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대단히 기뻐하며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가 남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물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고 말씀하시며 삭개오의 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지위나 명예로 채울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삭개오와 그 가족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삭개오를 통해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만히 세월 가는 데로 그냥 있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확실하면 그 진리에 인생을 모두 걸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교회에 끌려와서 졸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안 온 것 보아야 물론 좋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절박한 소원이 마음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몸에 병이 들었거나 문제를 당했거나 슬픔을 입어 삶에 회의를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뜨거운 소원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어야 진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전혀 그리스도들 알겠다는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진리를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2) 삭개오는 자신의 한계에 주저 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의 장벽을 뛰어 넘은 사람입니다.

### 1. 환경의 장벽들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키의 처지의 연약함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 작은 키의 열등감에 주저앉지 않고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이 정도 밖에 안돼 그러나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에 새길 말씀은 빌 하이베즈 목사님이 말한 것 같이 "내가 안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되는 것이 아니다"

### 2. 인의 장벽들

사람들에게 가려서 앞으로 나가질 못했을 때 그는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가 인의 장벽을 극복했습니다.

#### -비신자들의 장벽

처음 믿기 시작하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비웃습니다.

#### -신자들의 시험

끝까지 인내하여 시험을 이기는 자가 승리한다.

### 3) 삭개오는 결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눅 19: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단할 때도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즉각 만들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8절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재산의 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영혼을 치료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세상 욕심으로 살던 삶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여 사는 것을 뜻합니다. 삭개오는 자기 죄를 회개했을 때 영혼을 내리 누르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결단해야 한다.

영국의 어느 바를 하는 술집주인이 빌리 그래함 목사 전도 집회에 참석하여 회심한후 즉시 가게에 돌아와 문을 닫고 그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술장사 안 합니다" 흥하던 망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결단할 때부터 부흥은 시작됩니다. 지난주일에 예배팀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모였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임재와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하나는 모임이고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더 좋은 것을 찾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해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 우리의 편리함이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선교를 다음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다음 단계인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이 희생은 세상에 가장 값진 희생일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신앙생활을 정의하자면 심플합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 하고 있는 것인가? 신앙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얼마나 포기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 나눔의 시간

1. 당신은 지금 가장 간절한 열망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는 무엇입니까?
2. 당신은 한계에 주저 앉은 일들과 또 뛰어 넘은 일들을 말해보고 나누기 바랍니다.
3. 신앙생활에서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